시선

사설

직접 참여 민주주의, ‘전자투표제’로 실현하자

이번 주부터 양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재적학생 3만 명이 넘는 우리학교에서 학생대표자의 중요성과 의미는 매우 크다. ‘학생 대표자’ 선출의 의미를 넘어 향후 1년, 우리학교 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라고 평해도 과하지 않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학생사회에서 연일 불거지고 있는 문제 탓이다.

2학기 들어 서울대 총학생회장 제적논란이 보도됐다. 총학생회장이 제적으로 인해 ‘권한’을 상실한 상황을 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 등이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더불어 예산사용의 불투명성까지 겹치면서 학생 사회의 실망은 극에 달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비리 역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생회’의 도덕적 해이나 ‘권력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이 문제가 ‘학생회’ 내부의 일로 국한시킬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서울캠퍼스에서 대자보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총동아리연합회와 한기연의 진실게임이나, 국제캠퍼스에서 지난 2011년 이후로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는 선거시행세칙 중 ‘4학년 투표권’ 논란 등도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다. 바로 ‘무관심’이다. 그동안 학생사회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선전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투표일 연장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등장한다. 배경은 결국 ‘의사표현’ 수단의 한계 탓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서울캠퍼스 학생회 투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비롯한 모바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이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일이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첫’ 시행인 만큼 작은 실수부터, 중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자투표제의 특성상 해킹을 비롯한 ‘조작’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보완하고 방지해야 할 문제이지 전자투표제 그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자투표제 도입이라는 시작점에 대한 기대는 크다. 특히 앞으로 대표자 선거뿐만 아니라, 학생사회에서 하나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던 ‘직접참여민주주의’의 발판으로 가는데 전자투표제의 적극적인 활용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판단을 한 사회에서 어우르는데 대의제는 분명 한계가 있을뿐더러,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에 비해 몰입감과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더욱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사회에 국한할 일은 아니다. 최근 구성원 사이에서 논란이 된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연구부터, 교수의회와 노동조합 등의 선거와 활동에서도 학생사회에서 등장한 전자투표제는 유의미한 검토의 대상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캠퍼스 마스터플랜부터 SPACE21까지 ‘8년’

SPACE21사업, ‘첫 삽’ 뜰까?

최승욱 기자
〈정기자〉

“노후된 시설, 많이 불편하셨죠? 5개 단과대학 중앙도서관이 신축되고,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지난 2007년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기자가 중학교 1학년이던 시절의 대학주보 기사내용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들은 흥미롭다. ‘곧’ 시작될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신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단과대학에서는 “우리 건물이 더 낡았다”고 토로한다.

원래대로라면 1차 마스터플랜이 완성돼야 하는 2009년을 지나, 2010년이 되서야 1차 마스터플랜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다. 이때의 모습도 2007년과 유사하다.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양 캠퍼스에서는 ‘무용학부관’이 한 동 건설되고, 정문 주변정비가 진행됐다. 2011년까지 ‘공사문제’는 없었고, 여러 번 열렸던 공청회의 결론은 늘 같았다. “빨리 지어달라.”

공사가 연기되면서, 기존의 마스터플랜 계획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쏟아진다. 결국 2011년, 마스터플랜은 ‘축소’된다. 이후 조용한 시간들 사이 2012년 5월 법인의 승인이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경희대는 고요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캠퍼스 종합개발’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3월 예정돼 있던 노천극장 리모델링은 5월까지 진척이 없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기자가, 어느덧 ‘두 번째 수능’ 200일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 무렵이다.

기자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다시 재수생으로 신분이 바뀔 때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이제는 SPACE21 사업이라 바뀐 이 계획은 나이테를 하나씩 둘렀다. ‘짓는다!’에서 ‘지을 것!’, 다시 ‘짓나?’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대학주보의 수많은 기사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선배 기자들을 이야기할 것도 없다. 당장 올해 대학에 입학한 기자와 동기들 역시 4월에, 6월에, 8월에 그리고 지난달에 ‘공사의 시작’ 가능성을 점쳤으니까.

이번 취재과정에서 다시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종합체육관 착공을 시작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SPACE21사업이 드디어, 정말, 진짜, 참으로 첫 삽을 뜰까. ‘담당자’의 말이기 때문에 기사에 적긴 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기자가 대학교 4학년이 될 때쯤에 또 ‘새로운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이 먼저였다. 이제 1년 캠퍼스에 머문 기자조차 이렇다면, 더 오래 지낸 고학번들 혹은 이곳이 직장인 교수와 직원들은 어떨까. 무려 8년이다. 이제 더 이상 ‘졸속’ 계획을 의심할 기운도 남지 않은 구성원에게 2014년은 무엇으로 기억될지 궁금하다. 사실 올해는 2007년 발표했던 캠퍼스 마스터플랜 2차 공사가 마무리돼 ‘경희가 미래로 도약한다’던 때다.

MOOC, 학벌없는 세상 여는 ‘열쇠’되나

세시봉

정용재 〈여론팀장〉

이번 학기 KLAS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 중이다. 오랜만에 들어본 온라인 강의에 대한 소감은 한마디로, “세상 참 좋아졌다!” 경희온라인캠퍼스(KOC) 시절에 비교해봤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온라인 강의는 교수와 학생 간 피드백에 한계가 뚜렷했고,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KLAS의 온라인 강의는 매주 보는 쪽지 시험으로, 항상 ‘집중’해야 한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KLAS에 포함돼 있는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됐다. 그날 수업을 정리해 포트폴리오 시스템에 게시하고, 학습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놓으면 며칠 사이 친절한 답변이 도착해 있다. 게다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리내용과 질문내용, 교수의 답변까지 바로 참고할 수 있다. 잘 구성된 시스템 덕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감사한 일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불리는 개방형 온라인 강의가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대시티, 코세라, 에드엑스 등의 3대 개방형 온라인 강의는 서비스를 개시한지 불과 1년 반 정도 만에 수강생 수가 일반적인 대학정원의 438배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3대 MOOC 이외에도 현재 40여개 이상의 MOOC가 존재하고 있으며, 에드엑스와 코세라는 아시아 대학들을 협력대학으로 참가시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는 에드엑스에, KAIST는 코세라에 참여한 상태다.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세계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학벌’은 그 위미가 퇴색될 것이라 희망해본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자신의 신간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통해 “MOOC와 함께 시작된 한계비용 감소 현상은 불과 2년 사이에 고등교육 구조에 깊숙이 침투해 수백만 학생이 대학 학점을 취득하는 한계비용을 제로 수준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며 “엘리트 대학들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가 거의 무료가 되면 전통적인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전통적인 대학은 MOOC를 갈수록 더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지금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기대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학벌문제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입시경쟁, 대학 서열, 학벌구조가 뒤엉켜 만들어낸 모순은 중등교육의 대학입시 도구화와 사교육비 상승과 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

MOOC가 단숨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세계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학벌’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 희망해본다. 그리고 그런 날이 왔을 때 진정으로 다시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참 좋아졌다!”

정외과 용혜인씨 세월호 관련 시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미디어 여론동향 2014.11.3 ~ 11.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정덕환 교수가 지난달 25일 열린 ‘제33차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에서 임상부문 우수논문상을 받았다.(정덕환 교수, 대한미세수술학회 우수논문상 수상/청년의사, 2014.11.3) 수상 논문은 ‘감염이 동반된 하지의 대형골 결손에 시행하는 미세수술을 통한 유리피판술과 동측의 생비골 전위술이다. 이번 연구는 골수염이 동반돼 있고 뼈의 결손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경골, 대퇴골 골수염, 연부조직 결손의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팀은 미세수술을 이용해 연부조직을 피복하고 뼈도 재건하며, 골수염의 치료와 연부조직의 재건 및 골유합을 얻게 하는 방법을 제시, 올해 우수논문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관련 시위를 벌인 혐의로 우리학교 용혜인(정치외교학 200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가만히 있으라’ 시위 기획 대학생 불구속 기소/MBN, 2014.11.3) 용 씨는 지난 5월 18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해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벌였다. 용 씨는 오후 7시가 넘어 미리 신고한 행진 시간이 끝났음에도 참가자 150여 명과 함께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12-13일 ‘청명심수(淸明心受), 김백봉 춤의 아리랑’이 공연된다.(한국무용 大家의 춤꽃 활짝 피었다/조선일보, 2014.11.4) 우리학교 무용학과 김백봉 명예교수는 ‘한국 신(新)무용의 대모(代母)’와도 같은 존재다. 무용가 최승희의 문하생으로 14세 때인 1941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무대에 섰으며, ‘화관무’ ‘부채춤’ ‘산조’ ‘만다라’와 무용극 ‘심청’ ‘춘향전’ 등으로 신무용의 형태와 기틀을 마련했다. 1952년 무용연구소를 열었고 1992년 우리학교 교수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그의 독무(獨舞)에 초점을 맞춘 이번 공연은 정은혜·장유경·장인숙 등이 출연하며, 올해 공연 40주년을 맞은 ‘청명심수’를 비롯해 ‘선의 유동’ ‘광란의 제단’ 등이 펼쳐진다.

신명숙(55) 동문(대진대 무용예술학부 교수)이 춤 인생 50년을 기념해 11일까지 종로구 관훈동 갤러리 이즈에서 ‘춤추는 한지인형’ 전시회를 열고 있다.(신명숙 춤 인생 50년, ‘춤추는 한지인형’展/세계일보, 2014.11.4) 이번 전시회에서 무용가이자 종이 공예가인 신 동문은 부채춤, 태평무, 장구춤, 소고춤, 살풍이, 승무, 검무 등 다양한 공연 모습을 소재로 만든 전통 한지 인형을 전시하고 있다. 우리학교 무용과에서 학·석사를 취득한 신 동문은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무용인류학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8년 대진대 무용예술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 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인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